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우리 교회의 교육 천국시민의 삶 실현을 위해

우리교회는 설립 초부터 교회목표로 교육과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모든 성도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에 힘써 왔다.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와 국가, 직업, 재물 등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영아의 영적 성장과 신앙 인격을 성장시켜주는 탁아부로부터,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부, 국민학생을 위한 유년부와 초등부, 학령에 따라 나뉜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를 통해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여 천국시민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해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새가족의 신앙지도와 교회 생활 적응을 돕는 새가족부와 비록 몸에 장애를 가졌지만 무한히 잠재해 있을 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말씀을 통해 재창조함을 받도록 하는 사랑부가 있다.

우리 교회 교육은 12개 교회학교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해외 목회자를 위한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장학회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를 실현해 가고 있다.

이제 방학과 지리한 여름을 뒤로하며 기대와 새로운 각오 속에 새 학기를 맞는다. 우리 각자는 자신과 가족이 속한 교회학교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의 교육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천국시민의 삶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알찬 결실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95 하반기 장학생 선발 94명에게 총 2천 8백 55만원의 장학금 지급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이남호 장로)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특별히 올 상반기부터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교회 내 장학생 53명과 농어촌 목회자 자녀 41명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94명에게 총 2천 8백 55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장학생 \***

**대학생 (신학생)**

권재현	최요섭	최 욱	임창현	박상훈
박경민	김주연	임혜경	최혜진	손영희
이선주	홍진선	최현정	이주은	김 진
이명진	유사라	배혜정	김 희	권영선
김지연	김성호	박종상		(23명)

**고등학생**

홍석현	황종훈	김영진	허민환	신천규
안상미	곽정임	고은혜	주미영	강혜진
유혜진	김혜숙	박성희	길수현	홍은경
정희진				(16명)

**중학생**

임인섭	윤은규	김종화	안영석	임만석
백 훈	주정주	김상호	양소영	김은정
김윤정	김은정	박효인	유명진	(14명)

**\*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

**대학생 (신학생)**

김은실	김은화	김창식	김유진	노선옥
박종성	구은광	송명중	송은아	심에스더
유요한	이성결	이종순	전준봉	(14명)

**고등학생**

정소영	엄지영	김 면	김 관	이나비
이신자	안애림	정효경	심요한	오소영
김강석	이승훈	최 용	이경신	(14명)

**중학생**

김 류	남기명	심어진	오빛나	오신영
유안나	이사라	안인국	박영선	이재천
정지영	최다윗	최 현		(13명)

### 9월 첫 주, 장년부 개강

무더웠던 여름동안 방학을 했던 장년부(부장: 이영세 장로)가 9월 첫 주에 개강한다.

올해 1월에 개교한 장년부에서는 지난 6개월간 박형용 목사를 강사로 빌립보서를 공부해 왔으며 박 목사가 안식년을 맞아 도미하면서 새 강사를 모시기까지 두달간 방학 기간을 가져왔다.

장년부는 앞으로 2개월간 새로 부임하는 이순환 목사를 강사로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11월부터는 현재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는 김영환 목사를 강사로 하여 성경을 공부하게 된다.

### 대학부 지도에 원 호 목사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9월 첫 주부터 원 호 목사가 지도하게 된다. 원 호 목사는 우리교회 교육 전반을 연구하고, 교육위원회를 총괄 지도하면서 대학부 부흥을 위해 일차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참세기 강해



# 잃어버린 축복

(27장 1절 - 40절)

이종운 목사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이삭

오늘 본문에 이삭에 대해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1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일을 판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존경받을만 하나, 경험을 앞세워서 고집을 부리기 쉬운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늙으면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삭은 일찍이 두 아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난 야곱을 사랑하시어 형이 그를 대접할 것이며 그에게 모든 권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잊으려 한 것인지 모르지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아 어두워서 잘 못보는 이삭은 산에 가서 짐승을 사냥하여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축복하리라고 에서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불신앙과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2. 리브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요 두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심장부요, 가정의 심장은 어머니, 곧 모성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은 모계를 따라 유대인임을 판명하고,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정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불신의 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남편된 이삭은 아내 몰래

큰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 오라고 명하고,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짐승의 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적대감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 다.

리브가의 실수는 영적인 면에서 실패자가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인간적으로 뒤엎는 이삭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삭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피를 써서 야곱으로 하여금 속임수를 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리브가가 원하던 대로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은 수십년을 형 에서를 피해다녀야 했습니다. 죄의 책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 다.

## 3. 야곱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팔죽 한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심을 갖지 못하고 어머니 곁에서 머물면서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합니다(20절).

그러나 그는 영적 축복이 귀중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 다. 영적 축복이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활한 인간의 방법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후일에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내 고집과 편견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노니" (히10:17)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약속된 큰 복을 우리 모두 누리야 하겠습니까.

## 4. 에서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에서는 울며 원통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동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망명되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12:15-17).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울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계시하신 말씀을 부인한다면 그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은 감정을 정화하는 정도의 유익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 순례자 컬럼 ✦

####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용서도, 기다림도, 희생도 찾을 수 없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

진리를 상실한 교회는 힘이 없다. 감상에 치우쳐 로고스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성애 치우쳐 성령의 역사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화되려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순결을 상실한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하고, 잠자는 교회는 죽은 정통만 붙잡은 교리적 고혈압증과 행위의 빈혈증에서 벗어나야하며, 열심을 상실한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기회주의적 회색 신앙을 벗어버려야 한다.

환난을 이긴 한국교회여!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편에 서서 죽도록 충성하자.

■ 새가족이 되고보니

60살이 넘도록 잠만 자고 있던 제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온 교포입니다. 85년 이후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신자가 되기를 여러 번 권유받았으나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작년 7월 14일에 발을 디딘 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으나 제 마음과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왕래를 끊었고 그들의 출입을 허락치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처소로 이사한 지난 5월 이후, 이웃에 사시는 남미희 집사님의 사랑의 권유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오가던 중, 남 집사님의 인도로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발을 디딘 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서 놀랍게도 세계정세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

# “저는 서울교회의 탁아부 학생입니다”

오 해 운 (새가족부)

제가 볼 때, 이미 서울교회에 몸 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오신 교우 여러분들은 서울교회의 대학생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나이는 60이나 되지만 이제 겨우 탁아부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착실히 배워서 제 나이 70이 되는 10년 후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만큼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서울교회에 몸 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서울교회의 대학생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나이는 60이나 되지만 서울교회 교인의 연수로 보면 이제 겨우 탁아부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착실히 배워서 제 나이 70이 되는 10년 후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은 델레야 뿔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하였으니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머나 먼 중국 땅으로부터 아름다운 한국 땅에까지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였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뵈는 일도 황송하고 감사하였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어서 된 일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

■ 용정교회에서 온 편지

농촌전도단이 다녀간 후

## “교회와 지역 주민의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용정교회의 문성용 전도사입니다.

서울교회 95년도 여름 농촌전도단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교회 전도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호전도팀,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 의료봉사자와 지역봉사를 위해 땀 흘리신 여러분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



다. 먼저, 교회를 향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해소되었습니다. 교회와 마을이 한 마음이 되었고, 중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영생을 증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용정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와 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장년 8명, 중·고등학생 4명, 어린이 10명 등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고, 주말마다 주의 전이 가득 차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양하여 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제목은 마을 전체에 가득한 우상숭배의 풍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정교회 문성용 전도사 올림

◀ 95농촌전도단의 여름성경학교 진행 모습(전안시 용정교회)

#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한국장로교의 날"

## 9월 1일(금) 한국장로교회 연합으로, 소망교회당에서 오후 2시 예배에는 성찬예식과 헌금순서도 오전 10시에는 이종윤 목사의 특별 강좌

한국장로교 협의회에서 9월 1일(금)을 "한국장로교의 날"로 정하고 장로교 총회 구성 80주년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오후 2시부터 소망교회(압구정동 소재)에서 장로교회 연합으로 드리기로 하였다. 이 기념 예배는 총회 구성 80주년을 기념 할 뿐만 아니라 갈라진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되어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특별히 조국 해방 50주년을 맞아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한국 장로교회의 통일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날의 예배는 장로교 모든 교회가 연합 다락방 모임으로 정하여 한자리에 모여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장로교 연합을 위해 헌금하는 순서도 갖는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민족화합과 민족 통일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한국교회가 하나되기 위한 이 모임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예배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두 개의 강좌가 열리는데 그 중 젊은 목회자 협의회가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강좌는 이종윤 목사가 "21세기 목회전망과 한국교회의 연합"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게 된다. 한국 장로교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갖는 강연에는 성도들

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연합예배에 참석할 성도는 1시 30분까지 예배당에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혼잡을 줄이는데 협조해야 한다. 연합예배와 강좌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와 교통편 등은 교역자실에 문의하면 된다.

100여년 전,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기독교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직제가 생기고, 교리에 대한 해석과 행정 방식에 의해 여러 교단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장로교 협의회는 이 중 한국의 대표적인 8개 장로교 총회(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개혁, 합정, 호헌)가 연합하여 세계선교, 창조세계의 보전, 사회정의 실현, 이단사이비 척결, 경건 도덕성 회복, 여성문제, 통일예의 공헌 등 7개 과제를 공동의 과제로 삼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지난 23일(수) 11부 예배시에 8월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온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학습·세례자들을 보며 함께 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재확인하고, 그 말씀따라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재다짐하였다.

### ■ 교우동정 ■

#### 탁경준 집사 - 전국 CBMC 전도왕으로

우리교회 탁경준 집사(제 5교구)가 전국 기독교실업인회(CBMC) 제 22차 전국대회에서 금년도 최다 전도상을 수상했다. 탁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많이 한 성도 중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 예배 시 8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8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 8월의 새가족 \*

- 장호중 이바우 박용준 장재희 강은애 조명희 이순남 최현정 김복덕 유희영 남형원 김호숙 윤주영 김윤희 이종자 조옥자 박기현 박지용 박소영 김석현 박은숙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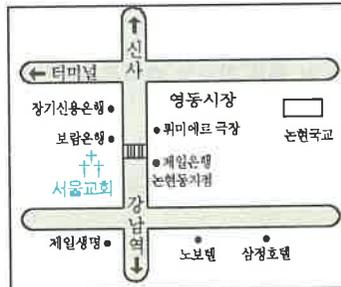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강단」 매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가 천국시민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2.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3. 새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며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